

# 버르는 여야...적폐·민생·안보 총돌 예고

## 국감 D-1...상황실 개소

### 적폐 청산 vs 정부 심판

#### 프레임 전쟁 돌입

여야는 10일 '국정감사 상황실' 개소와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국정감사 전초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안보·적폐청산 세 가지 기조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국민께 하나둘씩 앞으로 '새 나라가 이것이다'·'이렇게 가야한다'고 적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민생·안보·적폐청산 국감을 위해 의원 121분 한 분 한 분 전방위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역시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해위협 앞에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 실상을 파헤치고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치보복과 사찰의혹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안보·경제·좌파·종속·인사적폐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한 바 있는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전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문제에 대해 책임성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 통과와 '남을 위한 행진곡' 법제화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국회 각 상임위별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정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기재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



확인 또 확인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광주전남 국감 일정

상임위	일시	피검기관	장소
교문위	13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부세종청사
	19일 오전 10시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회
	24일 오전 10시	전남대·전남대병원·순천대	전북대
법사위	24일 오후 2시	전남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26일 오전 10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대전고법
행안위	26일 오후 2시	광주고검·광주지검	대전고검
	24일 오전 10시	전남도	전남도청
농해수위	24일 오후 2시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13일 오전 10시	서해어업관리단, 여수·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회
환경노동위	19일 오전 10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회
	24일 오전 10시	여수관광진흥공사, 해양경찰교육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충북지방해양경찰청
산자중기위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기상청	국회
	19일 오전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과방위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회
	20일 오전 10시	광주과학기술원·국립광주과학관	국회
기재위	23일(현장시찰)	국립광주과학관·세계김치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나주
	26일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 광주전남, 목포본부	광주지방국세청

의 소득주도 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

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 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을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북핵·미사일 등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 또 정부가 제정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책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단 비위 사안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도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환노위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 공식화

## "안철수·손학규·천정배·정동영 등 중진들 총출동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0일 사실상 전남지사 도전을 선언,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를 조기 점화시켰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가 지난 8월 휴가도 그러했지만 이번 연휴 12일 동안 전남은 물론 광주와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살살이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으면 존재가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이 이번에는 전면에서 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 번 이끌고 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오늘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한 셈이냐'고 질문하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저는 그렇게(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이자 "그러면 맞다"고 밝히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전남지사 도전 공식화에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 정치적 내공 그리고 전국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박 전 대표의 도전은 내년 전남지사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치열한 내부

경선이 이슈가 된다면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박빙의 판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 전 대표의 전남지사 도전은 내부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당의 동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전남지사 도전은 자유"라며 "치열한 경선이 국민의당 후보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전남지사 선거에 정치적 생명을 거는 승부수를 던진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전남지사 도전 선언은 광주시장과 전복지사 등을 둘러싸고 출마가 거론되는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김동철 "병역면탈 2년새 15% 증가...대책 시급"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지난해 병역면탈 행위가 2015년 대비 14.9%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난 2016년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54명으로 2015년 47명 대비 7명(14.9%) 증가했고, 올해도 8월 기준



병역면탈자는 43명"이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병역면탈자는 65명으로 전년 대비 11명(20.4%)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르면 최근 3년간 병역면탈(144명) 유형으로는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질환 위장, 고의

# 국감 앞 여야 원내대표 불꽃 신경전

## 與 "초당적 협력 필요"...野 "FTA 재협상 해명 있어야"

열흘간의 추석 연휴 이후 한 자리에 모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신경전만 벌였다. 적폐청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였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0일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당은 북핵 위기와 FTA 등 국가적 현안이 눈앞에 닥친 만큼 야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야당은 이와 함께 FTA 재협상 착수에 대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당론을 압박했다.

4당 원내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에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면

서도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야당의 말씀을 잘 귀담아들겠다. 여야정 협의회 구성 논의도 충분히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한 뒤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추락한 민주주의를 챙기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FTA 재협상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 같다"며 "특히 여당의 활동이 정치보복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보수의 씨를 말리고,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은 것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FTA 재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FTA 체결 당시 진보정권에서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꼭 들여야겠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역지소로 36

##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원학과(M.A.)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